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향 망성
민족복음화
세계 진리
아우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3:21)

『김성관 목사 설교』



주관 충헌

죽었으나 산 자요

“...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않을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어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6-14)

인간의 죽음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단순 명료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의 역사적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굳이 열심히 탐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신자의 죽음에 관하여 놀라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8절). 진실로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남자로 무한하고 모든 인간은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은 장차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빨리 불되어야 할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죄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으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진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는 자가 아니라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된다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아말로 어떤 특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나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6,7절).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전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현재의 삶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참된 진리를 알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아니오’와 ‘예’

진실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들 중 한 가지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11절). 여러분은 신자로서 이 선언을 받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셨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예수께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자신의 피조물과 창조주 그리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대해서는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요청하신다면, “예, 예,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으나 산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이 예수께 “예”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욕구를 십자가에 못박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즐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판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그리스도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셨을 때, 죄로 가득찬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해야 하며, 옛 자기를 내동댕이쳐야 합니다. 새로운 삶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8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언입니다?

새로운 생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십니까(9절)? 믿는 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10절).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편 죄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조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합니다. 죄는 죽음을 입니다. 죄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영에 붙어다닙니다.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억압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도록 방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옛 생활과 옛 자이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어야만 하며, 그것을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아직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엡사 3:6, 1:8, 약 3:2). 완전한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실패자입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은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일,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와 된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 이는 사실을 받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림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12절).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언제나 죄는 여러분을 휘두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것이 진리로 드러나도록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죄는 놀랄도록 끔찍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죄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육체에 아예 매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은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고 의로와 함께 살으라”(13,14절). 죄가 마음대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때때로 마귀는 매우 재빠르게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서는 “네가 해야만 한다”, 또는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라는 식으로 유혹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그의 계획을 따라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참된 생명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은 진정ებულ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약화된 것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앞에 언급된 것들은 여러분을 속여내고 애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온갖 노력에 다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돈과 존경과 명성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모든 약화된 것들로 채워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위한 공헌은 조금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밀려옵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로서,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하려금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음을 채우십시오. 무장시키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읽는 자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하는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피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마와 같이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즉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Sermon of pastor Kim



DEAD BUT ALIVE

"...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knowing that Christ, having been raised from the dead, is never to die again; death no longer is master over Him. For the death that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that He lives, He lives to God. Even so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 (Romans 6:6-14).

It's a simple and clear fact that humans die. You don't have to do much research to discover the historical evidence of this truth. In today's Scripture verses, believers find an even more amazing proof concerning death,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v. 8). This is an amazing blessing for believers! Every human eventually realizes that he or she is going to die, but those who die believing in Christ also realize that they are going to live. Isn't that a blessing? Our Creator has given His creatures a choice,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live. If you will not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die. It's a simple and clear fact that all humans need to grasp quickly.

Sin is a curse placed on all humans born into this world. There's no avoiding it, and there's only one way to eliminate it. The one and only way to remove the curse of sin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obtain the amazing truth of life after death, you have to believe it. You have to be a believer. If you're a believer, you've got eternal life. If you're not a believer, you've got eternal death. Believers' sins are forgiven, wiped away,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They receive new life in Christ. This blessing is a privilege beyond all privileges. Nothing compares with eternal life! "Knowing this,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our body of sin might be done away with,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for he who has died is freed from sin" (vv. 6&7). If we truly know this, then we know what we have to do. We have a responsibility, a duty, to carry forward until we meet Jesus face to face. Because we know of this truth now, the truth of a better life, we have to live accordingly. We have to recognize the important things.

What are the important things? One of them is to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Jesus" (v. 11). You have to accept this as a believer. Do you believe and accept it? If you do, it means that you say "No" to yourself, and "Yes" to Jesus. If you're a believer, then you understand this. You know that you have to deny yourself all the time. You have to say "no, no, no" to your pride, opinions, and self-interests. When Jesus asks you to do something, you have to say "yes, yes, yes". In this way, you are alive. You're dead but alive! As a new creature, you say "Yes" to Jesus, which means you say "No" to yourself. If you don't recognize this, then you're not a believer. If you don't practice this, then you're in danger of eternal death. This is a very deep and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my friend.

Before Christ, we always satisfied and enjoyed our own desires. Our reputation and level of respect was so important. Earthly things mattered more to us than anything else did. After Christ, all these things had to die on the cross with Him. When you accepted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r sinful body died with Christ. No more are you the slave of sin. Now the blood of Jesus Christ makes you a new creature. You become righteous in the sight of God because of His grace. Jesus took the punishment for your sins. That's why you have to die on the cross. You have to give up, let go, and drop the "old self" in order to become a righteous person with new life. Your confession is "Now if we hav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shall also live with Him" (v. 8). Is this

your testimony?

Do you know, "that Christ, having been raised from the dead, is never to die again; death no longer is master over Him" (v. 9)? Believers know this. They know that "the death that He died,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that He lives, He lives to God" (v. 10). Sin no longer has control over you, but it truly makes every effort to try and control you all the time. Sin is death. It continually is at your side, demanding to take you over. It wants to control you. That's why believers cannot let sin be their master. Our old life, our old self, died with Jesus Christ on the cross. It's true! It's an amazing fact! But we have to accept it. We have to practice it. There's no, not one, righteous person in this world. There is no one who does not sin (see 1 King. 8:46; 1 Jn. 1:8; Ja. 3:2). We all fail. No one is perfect. As a believer, you have to accept this truth too. Knowing that we have died with Christ and are no longer a slave to sin, we recognize that we are righteous from the grace of God. We have to accept that. We also have to accept that we are not perfect. As such, the need for us to know and practice our duty is a very important thing.

What is our duty?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lusts" (v. 12). That's our duty. Every time sin tries to shake you up, you'll fail unless you practice what you know to be the truth. You have to recognize and practice what you know. Sin has amazingly terrible power. It can destroy you immediately. If sin is in you, having his way, he is going to be your master. You'll end up in jail, under the law. Your new nature will disappear, go away. You can't "go on presenting the member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but present yourselves to God as those alive from the dead, and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to God. For sin shall not be master over you, for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vv. 13&14). Don't let sin have his way. Sometimes the devil is so smart, and comes at you like an angel saying you have to do this and you can do that. If you listen to him, then you're following his plan. You become an enemy to the Lord. You're real life gets destroyed.

Your body is a place of battle. You have to fight against its hunger, its thirst, and its desires for sinful things. All these things try to deceive you, to take you away from God's blessings. Don't try to make your life here on this earth happy with money, respect, fame, and all kinds of earthly remedies. If you do, you'll fill your heart with all kinds of sinful things, and have no room for the blood of Jesus. Sin comes to your heart all the time. It wants to reign over all people. As a believer, you have the Holy Spirit. He will equip, edify, and encourage you in the Word of God to overcome sin. The Word of God is always near if you listen and read it. We have to make Jesus Christ master in our heart. My friend, that's the way we have new life. He gave us His body and blood. New life only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We have the greatest privilege and duty. We have to accept it and practice it. That's how we endure the race of life. Just believe in Jesus. You can't do it yourself. The only answer is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That is what you have to practice. That, my friend, is what faith is all about. 🙏

나의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아 1:5-11)

정헌민 목사

아가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결정된 말씀입니다. 이는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라보니 정경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그들의 최대 명절인 율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아가서의 일부분을 노래로 부르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잠언서를 성전의 뜰에, 전도서는 성소에, 아가서는 지성소에 비유할 정도로 아가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서신이나 교회와 그리스도간의 교제에 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살롬 즉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악 속에서 참 진리와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 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신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21:15).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회복시키신 은혜의 주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갈릴산에서 바달과 아세라리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였지만 이세뿐 앞에서 도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주저앉아버렸고 인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어루만져 일으키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시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셨습니다(왕상19:1-8). 평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상실하셨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찾아오신 평강의 왕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그의 노래를 ‘아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는 참 천의 잠언을 지었으며, 천 여개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왕상 4:32). 그가 부른 수 많은 노래 가운데서 으뜸의 노래, 노래 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노래가 참으로 많습니 다.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녁 노을과 하늘의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사 8:3).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숨까지 주신 우리를 위한 사랑,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시기를 원하셨던 사랑,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던 구속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성도가 영원히 노래할 계곡입니다.

포곤에게는 평강의 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평행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들의 입에서는 찬양의 노래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 솔로몬은 죄 많은 우리를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목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신부로 부르신 교회를 노래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습 3:17).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피로 깨끗고 사신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신 영원한 사랑 노래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영원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본문 5절은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여인들과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내가 비록 겉으로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의 휘장보다 같구나”, 자신을 계달의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계달은 이스마엘의 차남의 후예들로서(창 25:13) 이들은 북아라비아 지방 등을 다니며 유목생활을 하며 장막을 감성색이나 암갈색의 염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술람미가 비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솔로몬의 휘장보다 같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술람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벧전 2:9). 원죄로 인하여 마음이 죄로 물들었고 겁어진 자들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비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적 권위를 가진 존재이며, 실상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의 연약성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으로는 절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계 12:10). 그때에 죄인들을 향하여 연약성을 대변해 주시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지금도 마음이 죄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으며(히 10:18), 눈과 같이 희어지게 양털같이 바꾸어주신 주님이(사 1:18)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에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죄성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쉼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7-11절에서는 포도원을 뛰쳐나온 술람미는 사랑하는 자가 양 떼를 먹이는 곳을 찾고 있으며 솔로몬이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곳, 참된만 물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떼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히 4:16).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십시오. 성도가 타인의 목장에 가면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고 맙니다. 창녀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창 38:15). 솔로몬의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어디를 가야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술람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오라고 합니다. 양 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앞장 서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야 하던지 하셨습니다? “여유코 굴이 있고 궁중의 수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도다”(롬 9:58).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34). “그리스도 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그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 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축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이 세상의 포도원지기로 남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6절). 술람미 여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세상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곳에서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늘 목마르듯 주셨습니 다(사 55:1). 그러나 술람미가 그 곳에서 나오기로 결단하면 난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길 천국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아멘

사랑스런 몽골인들

처음 어르항가이에 갔을 때는 저주받은 땅 같았다. 넓기만 하고 황폐한 광야에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그러나 하루 이를 전도하다 보니 하나니께서 사랑하는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르항가이에서도 우리가 간 게르(일종의 집)는 낯선 사람이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곳이었다. 하나니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미리 예정하셨던 것이다. 우리를 반기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몽골은 라마불교가 95%인데다가 우리가 간 게르=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그곳 사람들은 라마불교 이외의 종교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어르항가이에서는 미신이 강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산 밑에 있는 한 외딴 게르에 살고 있는 모녀를 만났는데, 그들은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고 싶지만 주변에 교회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안타까워 울고 말았다. 성경이라도 읽게 달라고 해서 성경을 전해 주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몽골에는 신기하게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성경을 전해주면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모녀가 함께 사는 가정도 있었는데, 그 가정의 두 자매는 대학을 다니며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알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자매의 어머니께 찬양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과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몽골어로 전하며 믿을 권하자는 두 자매의 어머니는 부처상을 가라기며 저절로 있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느냐고 했다. 그래서 라마교는 거짓되고 우리의 주님이 참 복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전하며 그 우상을 깨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전하자 그렇다던 자기가 직접 그 우상을 깨달고 하고 복음을 받아 들였고 딸들도 같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다. 어르항가이에서는 미신이 강해서 오래 전하지 못하고 곧 어르항가이로 옮겼다. 어르항가이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다. 교회가 없어 주일에 극장을 빌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몽골인들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

가서 만난 몽골인들이 모두 하나님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도한다. 건강한 하락단단 다시 가야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김효철 (원사, 17교구 15지역)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26

작년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우즈베키스탄의 남한강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복음을 전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슬림의 관습대로 그들은 저를 손님으로 따뜻하게 대접했고 집으로 초청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완강히 거절하였습니. 그리고 아 이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었습니다. 알로인이나 고아원을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노방전도를 할 때는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찰들은 미국인들을 만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단기 선교가 처음이었는데, 가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작성하고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외화의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어 가는 것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올해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을 때, 40구구 중 다섯 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팀원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지난해 CMTC 집중훈련에 세 분이 더 교육을 받으셔서 여덟 명이 되어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8일날(Kyrgyzstan)의 수도인 비쉬켄(Bishkek)으로 8월 8일날 단기 선교를 떠날 것이며 이번 주부터 팀훈련에 들어가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 훈련 과정에 언어 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장가되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켄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고 저들을 주님 백성 삼는 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2. 사역의 모든 일정, 즉 소수와 교통팀, 남매 그리고 모든 행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3.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어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최준호
12교구 2지역장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27

저는 외선부 몽골팀을 섬기면서 2001년과 2002년에 몽골단기선교를 각각 한 차례씩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후 외국인 형제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 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시대에 우리 총현교회와 단기선교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를 선교지로 택할까? 처음에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후 김성관 위임목사님 면담 시에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 중에 우크라이나를 선택하였고, 찬송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부를 때)을 붙여 부르며 오로지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여 우크라이나 중에서도 우리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 없는 동부지역의 푼도바를 최종 선교지로 선택하였습니다. 현지에서도 아침 경건회 시간 후 15분 정도 개인적인 QT를 통하여 미재한 성령님의 음성들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어린이 사역에 큰 비중을 두고 찬양, 율동, 인형극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집 없는 아이들, 본드 환자에게 취해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행 3:1-8)처럼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백성,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집시들과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여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단기선교 지원자가 없어서 근심하였으나 기도 중에 9명이 지원하여 2월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1명 더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1개월 남겨놓고 1명 더 지원하여 10명이 되었고, 통역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걱정하였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기선교는 일시적으로 한 번 갔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팀이 갔다 온 나라 현지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다음 해 다시 방문하여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다시 물을 주고 양육하는 단기선교를 하였습니다.



이성섭
12교구 6지역장

기도제목

1.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교하게 하소서.
2.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3. 우리 선대원들이 성령충만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 단기 선교 기간동안 가족과 교회와 사역을 주님께만 관리하여 주옵소서.

신입부 이야기

♡ 이 지영 (청년부 신입부원)

어릴 때부터 꾸준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적은 없다. 다만, 대학 시절까지의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어디에 거하던 내가 성도임을 당당히 밝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로마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 어려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을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믿을 없는 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히 밝히기가 두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힘든 것이 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자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 성경공부 시간에 배운 말로는 속사람은 알고 있는데 겉사람이 안되는 것이다.

더 많이 배워서 삶 속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소망한다.



♡ 최지나 (청년부 신입부원)

저도 죄인이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장으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말씀대로 바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으로 전하고 나의 죄까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성경공부 할 때 전하기 가장 힘든 것은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지혜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인데 세 개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이해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러 비유들이 있지만 인간의 이해 속에서만 생각하니까 진리가 가려집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누기 힘든 것은 기도와 응답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역이나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온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초신자의 경우는 이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도 막상 기도와 응답을 나누라고 하면 기복신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말합니다. 아마도 응답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광대한 생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응답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온다는 것을 알 텐데요.

말씀을 좀더 알기 쉽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입부원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내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확신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품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므로 근본적으로 악한 우리의 죄와 끊임없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품성과 역행하면 그는 마음속에 강한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고귀하게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진통도 없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끊임없이 역행한다면 그는 영생을 받았다는 아무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갈 5:18).

우리는 종종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와 '불교인은 겸손해야 한다'의 명제를 놓고 틀린 점을 찾아보십시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불교인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여 겸손을 만들어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충동해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느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일일이 항목들을 들어가며 이것은 잘 지켰고 저것은 잘 못 지켰고 하며 각각의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모든 죄들을 충동하여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그렇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희락이 아닙니다. 돈바는 일을 하기 위한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망위성을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서의 절제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간의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성도의 성도됨을 보여주며 천국에서의 축복을 맛보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살전 5:19).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꼭 세상의 법에 위배되는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이상일 수도 있고 좋은 의미의 욕망, 즉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기 생각하기에 위대한 것이라 하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옛 사람, 즉 육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의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한다면 성령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떤 것은 내가 하고 어떤 것은 성령께 의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의의하십시오.

"똥이 끈고 마유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행 7:51).

(‘성신의 거저지심과 인도하심’ 참조, 편집실 제공)

- 고린도전서 13절을 읽다가 -

♡ 사 랑 ♡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발씩 당신께 다가서렵니다

조금씩 나를 잠재우는 속에서

당신을 받아들이 공간을 만듭시다

나를 사랑하는 당신을 느끼며

아주 조금씩

당신께 다가서렵니다

급하게 당신의 사랑을 맛보면

사랑이 식을바 두려워서

천천히

조금씩 당신께 다가서렵니다

"이 글은 충현교회 병원 전도팀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형제가 병상에서 쓴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형제에게 그 첫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를 붙드는 힘

1. 성경공부를 시작한 계기

성도가 천국에 갈 때까지 양육받는 것은 필수가 아닌가 싶다. 청년부에 있을 때부터 양육 받았는데, 조금만 양육 받기에 나태해지면 영적인 갑갑함이 나를 억누른다. 주 간성경공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만이 이런 나의 갑갑함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2. 성경공부 중에서 시편을 선택한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찬양이라 생각한다. 그런 찬양의 기쁨이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시편인 것 같다. 시편은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담긴 것 같다. 시편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에 대해 긴밀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얻게 되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까지 알게 된다.

3. 가장 감동받은 내용

모든 시편을 150편까지 다 다룬면 좋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볼했던 노래로 120편부터 130편까지만 다루셨는데, 가장 감동 받은 부분은 그 가운데 시편 126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를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지라도 나를 붙드는 이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믿는 것이 묵상하게 된 것이 좋았다.

4. 모르던 것을 알게 된 내용

124편 기사는 우리라 겪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거나 그 일을 피하지 않았다. 124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찬양하였던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입술로만 그리고 가슴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5. 성경공부를 하면서 생긴 변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힘을 때, 주님은 내 편임을 깨닫게 되니 힘이 생긴다.

6. 시편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자, 섬김의 대상, 우리의 기쁨, 승리자, 평강의 예수님을 발견했다.

7. 현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왜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신다. 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며 한결 같이 살아갈 원한다. 더 나아가 내 삶과 생명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오늘날 힘써본다. 나를 붙드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박인정 집사
(주간성경공부-시편)

(권요셉)

마틴 루터도 종사의 십자가



5. 당신은 십자가로부터 인정 받는 사람인가?

오늘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자신의 구원과 영적 상태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연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믿고 있으며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임을 확신해도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믿어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않지 못하니” (23절)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인하신다. 무슨 말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認定)이라는 것이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신앙 고백은 아무리 훌륭할 것일지라도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자랑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며 자랑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참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자. 바울은 먼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즉,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끝냈지 않고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앞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여기에서는 십자가가 자신의 인격과 삶에 이루어 놓은 실제적인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 세상의 모든 사교 방식과 삶의 방식 및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 않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변화가 십자가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우리 마음과 삶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한 분명한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경험이지 아니하다. 십자가를 자랑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때문에 자기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자랑은 이런 삶으로 그 참됨의 여부가 판가름났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말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처럼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었는지, 우리의 입술과 삶도 “주 닮아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을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탐사해 보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점검해 볼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편진실)

다음 주일 찬송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했는데 27세 때 두 간의 부친장례로 부흥집회에 취재차 나갔다가 부흥사 모리스 박사의 설교에 감동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후 그는 1200여 편의 찬송시를 썼고, 이 곡은 1893년에 쓴 것으로 미국 성도들이 애창하는 곡이다. 작곡자는 윌리엄 제임스 커크패트릭(William James Kirkpatrick, 1838-1921)이다.

- 1절: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믿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이기 싫네
2절: 무한한 사랑 동성찬의 그늘 속으로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3절: 겸손하고 기뻐할 예수 원수의 멸치 함으시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후렴: 예수를 믿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극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주소서

이 찬송은 4번의 3박자 곡이며, 셋잇단음표에 유의해서 부르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진정된 고백으로 불러야 한다.

(창양원회)

새 · 아 · 족 · 을 · 향 · 영 · 함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73	류승주	1 청년부	박승욱(10)	580	라근대	9 청년부		605	최희원	19 대학부	윤진덕(7)
574	식순수	1 청년부	박승욱(10)	590	한병승	13 청년부	이문우(15)	606	김민우	19 청년부	박창식(2)
575	한승진	1 청년부	김기재(6)	591	이정성	14 청년부	이미주(4)	607	김진식	19 대학부	손준희(17)
576	최홍호	1 대학부	윤주원(7)	592	김진현	14 청년부	김남욱(1)	608	김한나	19 대학부	정유진(8)
577	임창남	2 청년부	박정환(10)	593	이영진	14 청년부	윤지국(14)	609	이영진	19 대학부	박익연(4)
578	박용식	3 청년부	윤주원(17)	594	노승우	14 청년부	윤지국(14)	610	원호정	19 대학부	이우미(6)
579	김우현	4 청년부	김경호(7)	595	최희원	19 예배타부	박정환(10)	611	김진현	19 대학부	
580	기승원	4 청년부	박정환(10)	596	이영진	19 대학부	이영진(17)	612	이영진	19 대학부	장순(4)
581	윤영진	4 청년부	이재원(19)	597	장정애	15 청년부	박정환(10)	613	김도아	19 대학부	김재준(10)
582	이승환	4 청년부	이재원(19)	598	김진현	15 청년부	김정환(10)	614	유지현	19 대학부	고진숙(4)
583	노승희	7 청년부	박용식(7)	599	이정성	16 청년부	박정환(10)	615	심정미	19 대학부	곽대준(1)
584	윤원근	6 대학부	윤주원(17)	600	주미리	19 청년부	이영진(17)	616	김지현	19 고등부	김아름(6)
585	이영환	10 소망부	전우현(8)	601	전우현	19 청년부		617	김진현	19 고등부	오영재(4)
586	이영환	10 소망부	전우현(8)	602	장남	19 청년부	최순복(14)	618	박정환	19 예배타부	조한아(19)
587	임창남	13 청년부	신소희(10)	603	장호정	19 대학부	박정환(10)				
588	최홍호	9 청년부	김숙자(15)	604	한은경	19 대학부	장순(4)				

※ 총회총회로 한 가지 기록이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기독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영혼

민 경 나 (사랑부교사)

부끄러운 마음으로 캔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나 자신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통해 주님께 감사한 것들 또 감사해야 하는 것들을 들려드리고 싶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가장 어려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주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기에 사랑과 순수함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생각하고 걸려서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지체아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 '순수한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몇 번 걸려진 사랑이 아닌 순수한 사랑. 벌써 사랑부 에 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도 처음 사랑부 학생들을 보았을 때는 진입건으로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고 내가 가르쳐야 할, 부족한 학생들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나 자신이 학생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았으며,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 학생들의 참 순수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일어나기 싫은 인간적인 마음이 저를 깰려는 아침이었습니다. 쉽게 이기지 못하고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교회에 늦게 도착하면 실망할 학생들의 눈빛과 어수선하게 떠돌고 있을 학생들을 생각하며 조바심이 나서 빨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그런 시선들이 아니라 문 앞까지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냐고 묻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들은 "왜 늦었어요?"라고 묻지 않고 "괜찮아요, 선생님"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때 묻지 않은 학생들 앞에서 때 묻은 손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찬양대가 511장 찬양을 하고 있을 때, 항상 맨 앞에 있는 정현이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사랑 다들 사랑" 찬양이 끝나고 저는 격정적 정현이를 달래주며 "정현이 아까 왜 울었어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현인 언젠가 울었다는 듯 웃으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 돌아봅시다. 괜한 편견으로, 괜한 선입견으로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의 순수함을 잊고 있던 않은지. 주님은 이런 사람이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몇 번 걸려서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글로써 제 마음속에 느낀 사랑을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겠네요. 사랑부에 한 번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매주 11시에 봉사관 지하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순수한 영혼들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안에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장애인 달이라, 저녁 찬양예배에서 수좌찬양을 드리는 예배다부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저보다도 우월해'라는 건방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지는 않는지요.

아름다운 순정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해서 예배다부 학생만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을 때, 저는 그들의 영혼이 우리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분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예배다부 학생들이 그저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로 말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십니다. 그 어느 한사람 놓치지 않으시고 전부 품

천국의 주인

어느 날 학교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배는 저에게 "너희 교회는 방인 기도도 하지 않고 예언도 하지 않지? 성경을 봐! 나는 너희가 다 방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고전 14:5) 라고 나와 있잖나! 하며 저희 교회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동부 선생님께 그런 점에 대하여 물어 왔습니다.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방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전 14:4)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방인으로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예언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앞으로 한 장 넘기면서 이 말씀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3:8).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선생님은 정민이를 보면서 사랑부에서 봉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을 때 사랑부 학생을 보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봉사해야지'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 일깨워 주시어 나의 발걸음을 사랑부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부가 나에게 여러가지 의문점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부 학생들과 같이 약한 자들을 주신 것일까?'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불편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조동후교 학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나이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 19:1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들과 같이 하여야 천국을 낫는 것이니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 18:4). 정말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학생들과 같이 약하고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 4:23).

사랑부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단 일분도 귀 기울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거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증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부 학생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길 때, 아픈 아픔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던, 그리고 그 양을 찾는 후 잔치를 벌였던 목사처럼 하나님께서도 천국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마 15:6).

우리는 회개한 돌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사랑부 학생들은 하나님께로 우리들에게 주신 보석입니다. 사랑부 학생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인하며 증거합니다. 몸이 건강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란 달란트를 과연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김 정 민 (사랑부교사)

소리없는 찬양

에 품으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면을 다스려 주는 절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불평만 하는 우리에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고통을 이겨낼 힘까지도 주셨습니다. 장애인이면 비장애인이면 그 구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께는 우리가 온전히 산체사로 드러나지는 아닌지가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이란단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작은 짜증과 불만을 감사함으로 극복해 보자구요. 꼭피로 같은 목사대신 손으로 그분의 사랑을 널리 전파 하는 우리 예배다부 학생들처럼 말이요.

이 수 란 (예배다부교사)

모임

1. 권사 3지회 월례회

일시: 21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결혼

1. 배성환 군(배춘식 장로, 안숙자 권사의 아들, 13교구)과 전희숙 양(전재하 성도, 황만춘 성도의 딸, 경서교회) / 20일(화) 13:00 잔치리틀
2. 정구일 군(정세홍 집사, 이영순 집사의 아들, 12교구)과 박지현 양(박수복 타고성도, 이명숙 타고집사의 딸) / 24일(토) 14:00 장남터미널 웨딩홀 5층 로즈마리홀
3. 김시은 군(김문부 선교사, 이은숙 집사의 아들, 6교구)과 최영진 양(최용희 장로, 배정숙 집사의 딸, 대구동신교회) / 24일(토) 14:00 여전도회관 2

- 충 무이시 기념관 (1호선 풍로5가 2번 출구,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4. 박중호 군(김복남 집사의 아들, 19교구)과 권형숙 양(이영제 씨의 딸) / 24일(토) 14:00 대성대영홀 1층 크리스탈홀

별세

1. 문영순 성도
류기명 안수집사의 모친, 이영숙 집사의 시모, 4교구 삼성 1구역 / 5월 12일 별세, 5월 14일 장례

주소변경

1. 심영보 권사
강서구 염창동 267-4 미하빌라 라동 101호 ☎ 2668-8057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들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동산 산역관리(인속시제관) 운전직 미화직 -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기도의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가하시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건강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사하게 하소서.
- ⑥ 교구별 태산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동태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벤주 새벽기도회 답당

	19(월)	20(화)	21(수)	22(목)	23(금)	24(토)	25(주일)
설교자/지도자	안창덕/이철호	방준영/전은배	나광영/김중진	정진호/박용기	김용득/이승계	이성국/정원희	김익환/실동자

예배 담당안내 (5/21-5/25)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5/21	수요일		이종대	박운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147:9) 여성기 목사
5/21	수요일 II		김영훈	박용국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147:9) 여성기 목사
5/23	금요일	특별찬양(소프라노 허숙현/벨레 중앙대/소년부 찬양대)	정현민	정현민	김동하 목사
5/25	주일 I		최종현	한승규	하나님의 사랑(요 3:16-17) 위관장 목사
5/25	주일 II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구가 외(소프라노 김중자/아현찬양대 솔로리스트)	김교성	박찬섭	나의 사랑하는 자(마 15:11) 정현민 목사
5/25	주일 III	십자가를 걸 수 있으나 바위에 올랐던 장녀(하일루아 오케스트라)	류병희	차신득	나의 사랑하는 자(마 15:11) 정현민 목사
5/25	주일 IV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외/탈루아 양중찬(지도: 이수진)	김익환	김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막 10:28-32) 고광환 목사
5/25	주일 V	내 주 되신 주를 참사하고 외(트럼펫 이영훈(고동부 오케스트라)	김정수	고재승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 25:13) 이성국 목사
5/25	주일찬양		나광영	이인원	선교의 사랑(레 16:8) 이종철 목사

교회 요시는 길



심 · 기 · 능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모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하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최대원 임병선 강보용 이 훈 남신우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정운성 김익길 조진재 김중구 최부길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김진세 이창호 차신득 김강남 이종성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이병호 안종욱 임부연 최기홍 이갑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전홍용 전홍열 임부연 김단용 장영일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한승규 김명수 김한기 원용철 이형수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안동현 황희만 김주형 최유진 이계인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박덕양 이태식 정대현 박용국 권명옥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조종환 배준식 김명달 이철호 박찬섭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최지윤 노영한 박철규 정정길 신수수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강지훈 고재승 김영은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익진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이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김교성 이윤진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정진호 김용득 이성국 고광환 김창곤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위관장 김익환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이희식 최홍철 최홍철 안치원 이태복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장충선 양재홍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전도목사 이정철
- 여전도사
- 정원희 신동자 윤인숙 현영준 김연식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홍순애 이옥주 김달자 안태준 김경연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조옥자 강덕철 김정선 장혜구 최문실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전은희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신교리교회 12교구
- 찬양감독 강영규 ■ 전담지파자 서준성
- 전담목장자 김소연
- 단기선교자 장기영 (소의 목회)
- 합침선교사 하효승 (이집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주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세례기도회	오전 9: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 11:00	본 당 앞 출발
금요집회	오후 11:00	금요집회 후 본 당 앞 출발

*목요일 10:00 / 월, 화, 목 오후 7:00에
동문생집회 및 출발하기 기도원 차량이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장 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장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 소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소 방 부	오후 12:15	갈 릴 리 홀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신촌자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사 랑 부	오후 11:00	복직전 지하1층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예배대부	오전 9:00(약 100명)	교육관 2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학 아 부	오전 9:00	교육관 102호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제2교육부	오전 9:30	갈릴리 홀, 대지니 홀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출향어린이집	주요교육	교육관 107호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주요교육	주요교육	출향 복지관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주요교육	오전 11:00	이 텔 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주요교육	오후 6:10	갈 릴 리 홀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주요교육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주요교육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0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